

어려워도 만든다! EBS와 지역 방송사들의 보석 같은 새 프로그램들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

목차

- 1 부자에게 듣는 성공과 행복의 의미, EBS(TV)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 2 잃어버린 맛을 찾아서, KNN(TV) 〈사라진미〉
- 3 수몰된 고향을 떠올리며, tbn경남(Radio) 〈오래된 수면, 고향꿈은 깊어라〉

요약

채널은 넘쳐나지만, 중소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경영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EBS 연간 콘텐츠 제작비는 500억 원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한 편의 제작비 600억에도 못 미친다. 기존의 정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도 빠듯해 보인다. 지역방송사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EBS와 지역방송사들은 양질의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EBS와 E채널이 만든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성공한 부자를 찾아가 부와 행복의 의미를 묻는 교양·예능 콘텐츠이다. 시청률로 보나 재미로 보나, 일단 합격점이다. 출연한 백만장자에 따라 매회 프로그램의 색깔과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모로 의미 있는 시도이다. KNN의 〈사라진미〉는 부산·경남 지역의 소멸위기에 놓인 전통 식재료와 식문화를 기록하는 다큐-드라마이다. tbn경남교통방송에서 방송한 〈오래된 수면, 고향꿈은 깊어라〉은 경남 지역의 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의 기억을 구술로 채록한 라디오 다큐멘터리이다. 두 프로그램은 지역 시청자들의 사랑과 더불어, 굵직한 방송상도 받아 가치를 인정받았다. 어려움 속에서도 새 프로그램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은 제작진들에게 존경과 응원을 보낸다.

1. 부자에게 듣는 성공과 행복의 의미, EBS(TV)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EBS와 E채널에서 공동 제작한 교양·예능 콘텐츠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부자들을 찾아가 그들만의 성공 비결과 삶의 지혜를 알아보는 12부작 프로그램으로, 2025년 4월 9일 수요일 밤 9시 55분에 첫 방송을 탔다. 시청률은 EBS 1.6%, E채널 0.4%로, 준수한 수치를 기록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백만장자’라는 키워드와, 부유함과 냉철함의 이미지를 지닌 서장훈을 간판으로 내세운 것이 주효해 보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이 있다. 단순히 부자들의 성공을 찬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부(富)는 어떤 의미인지 물으며, 성공과 행복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진중함이 읽혔기 때문이다. 보조 진행자로 조나단이 출연한 것도 적절해 보인다. 서장훈과 백만장자들의 대화로 자칫 분위기가 무거워지거나 시청자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로 제격이었다고 판단된다. 친근감을 지닌 데다, 외국인이어서 시청자들이 견제하고 비교하는 심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매회 서장훈과 조나단은 직접 부자들을 찾아가고, 만나기 전 백지 수표를 건네며 만남의 금액을 써내라고 한다. 두 사람은 부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고,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듣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꼭 묻는다.

출연자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색깔이 상당히 달라진다. 예술가적인 부자가 있는가 하면, 짠내 나는 부자도 있다. 자연인 같은 부자도 있고, 자기계발서의 화신 같은 부자도 있다.

첫 회에선 두 사람은 이천시에 자리한 만평 대지에 22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대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중세시대 백작 같은 범상치 않은 70세 남자가 이들을 맞았다. ‘1세대 남성 헤어디자이너’ 이상일이다.

그는 1982년 명동에 헤어살롱을 열어 고급화 전략으로 성공했다. 수많은 톱스타들의 헤어스타일을 담당했고, 앙드레김 패션쇼의 상징인 양머리를 만든 디자이너로 유명하기도 하다. 그는 “돈과 명예는 생각하지 않았다. 고객을 아름답게 해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성공과 물질은 따라온다.”라며 자신의 소신을 들려주었다.

[그림 1]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1화 이상일 편



출처 : EBS



2회에 찾아간 백만장자는 수더분한 인상의 60대 손정희 대표이다. 노점상에서 시작해 와플대학을 창업한 그는 연 매출 700억 원을 올리고 있다. 과거 사기를 당해 쫓딱 망하고, 전 재산 30만 원을 털어 산 리어커로 와플을 구워 팔기 시작한 것이 대박을 터뜨렸다. 손 대표의 성공 비결은 팔소가 아닌 붕어빵과 여러 종류의 크림을 넣은 와플이었다.

와플대학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신뢰가 각별하다. 손 대표는 “와플을 파는 게 아니라, 누구든 다시 일어설 기회를 파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브랜드의 본질이라고 강조한다. 손 대표와 와플대학이 실패한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인 셈이다.

그가 60대에 검정고시로 대입자격을 얻고 경영학을 공부하는 장면이나, 상기된 표정으로 라스베이거스에 가맹점을 열기 위해 떠나는 마지막 장면은 부자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여전히 꿈을 좇아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림 2]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2화 손정희 편



출처 : EBS

3화에서 만난 이현삼 대표는 세계 최초로 양면 프라이팬을 개발해 국내외 홈쇼핑에서 대박을 터뜨리며 한때 연 매출 2천억 원을 기록한 주방용품 계의 전설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 건강이 악화되자 회사를 매각하고 산으로 들어가 살고 있다. 부모 형제들과 함께 땅속에 묻어둔 건강한 식재료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돈만 바라보면 많은 걸 잃게 된다. 나는 하마터면 부자가 되고도 가난하게 살 뻔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부자 너머의 말을 들려준다.

[그림 3]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3화 이현삼 편



출처 : E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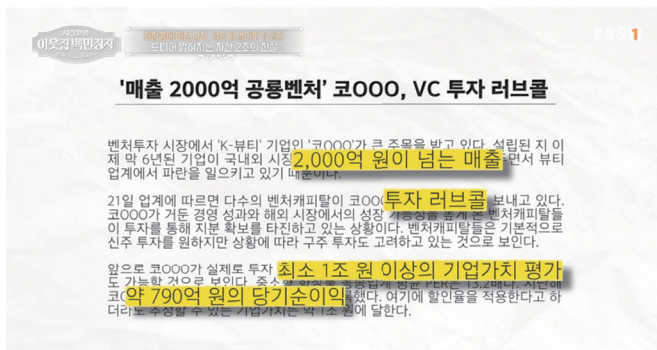
4화에 찾아간 백만장자는 김한균 대표다. 그는 가난한 달동네 출신이지만, 30대에 2조원 가치의 기업을 일군 K-뷰티 창업가이다. 중학생 때부터 화장품 덕후였던 그는 19살에 화장품 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남성 뷰티 블로거가 되었다.

하지만 20대에 남성 화장품을 창업했지만 실패하고, 아르바이트를 3~4개씩 하며 버티다가 기초 화장품을 출시한다. 이후 마스크팩이 중국 시장에서 대박 나면서, 누적 판매 22억 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물론 그의 성공에는 운이 따랐다. 사드 배치 여파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 수출길이 막히기 전에 그의 화장품은 미리 허가를 받아둔 덕분에 한동안 무주공산이 된 중

국내 K-뷰티 시장을 독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운이 거저 왔을 리 없다. 그가 10년 동안 어떻게 매일 경제공부를 하고, 운동하고, 다이어리를 쓰면서 시간과 목표를 관리해 왔는지 보여주는 대목은 시청자를 숙연하게 만든다. 그는 영 앤 리치(Young & Rich)를 이루었지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느끼기 위해 지금도 3-4시간만 자면서 분초를 아끼며 일한다.

[그림 4]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4화 김한균 편



출처 : EBS

5회에선 1세대 브랜드 상징 디자이너 구정순 대표가 출연했다. 광고회사에 다니던 회사원이었던 그는 미술품 수집가이자 청담동 건물주가 된 사연을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로고 하나를 디자인하고 그 대가로 땅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미술품을 사 모았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통 큰 투자이고 안목이다.

그는 “돈을 좇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정순 대표의 사연은 지금까지 출연한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과 결을 달리한다. 1980년대에 부모가 내어준 초기자본 2억 원과 청담동의 지가상승이 부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점이 다소 허무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후에도 출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격과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흥미로운 기획이고, 보여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기획이지만, 이질감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림 5]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5화 구정순 편



출처 : EBS

2. 잃어버린 맛을 찾아서, KNN(TV) <사라진미>

KNN의 <사라진미>는 사라져가는 전통 식문화를 담은 14부작 다큐-드라마로, UHD 고화질을 자랑한다. 2024년 11월 10일 첫 방송을 시작해 2025년 2월 16일에 종영했다. 일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었는데, 1%로 출발한 시청률이 꾸준히 상승해 12화에서는 5.7%를 기록했다. 경남 지역의 분당 최고 시청률은 6.7%를 찍었다.

<사라진미>는 통영, 거제, 산청, 하동, 함안, 창녕 등 경남 지역의 토종 식재료와 조리법을 알아보며, 그 속에 담겨 있는 역사와 문화를 들려준다. KNN이 지역방송사로서 가치와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사라진미>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PD연합회가 주관하는 제37회 한국PD대상 작품상(지역정규부문)을 수상하였다. 지금은 시즌2를 촬영 중이며, 올 하반기에 방영할 예정이다.

14부작 중 1화는 가장 드라마적 요소가 가장 강한 회차다. 문창과를 지망하는 고등학생 강하지가 엄마와 다투고, 불쑥 혼자 사는 할아버지를 찾아오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마치 영화 <리틀 포레스트>처럼, 강하지는 시골집에 머물며 할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힐링한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 강하지는 할아버지가 남긴 ‘맛노트’를 발견하고, 노트에 기록된 갖가지 토종 식재료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는 설정으로 이후의 회차가 이어진다.

[그림 6] <사라진 미>



출처 : KNN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강하지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 본 요리는 합자장이다. ‘합자’는 홍합의 다른 이름으로, 합자장은 소금물에 삶은 홍합 국물을 진하게 조려 굴소스처럼 만든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홍합 국물을 조려도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시던 감칠맛이 나지 않는다. “홍합은 버릴 것이 없다”던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린 강하지는 홍합 껍데기를 같이 넣어 끓인다. 이제야 비로소 그 맛이 난다. 홍합 껍데기에 붙어 있던 온갖 무기물이 감칠맛의 비결이었다. 강하지는 합자장을 계란 반숙과 함께 밥에 비벼 먹으며 할아버지의 맛을 추억한다.

2회에선 산청의 산나물, 3회에선 거제의 석기생(뜸부기), 4회에선 하동의 참계탕, 5회에선 하동 녹차, 6회에선 원동의 매실 등을 소개한다. 하나하나 설명이 예사롭지 않다. 산나물을 설명하면서 참나물과 파드득 나물을 구분하고, 석기생을 설명하면서 돌미역을 포함

해 해조류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곁들인다. 섬진강 참게와 수입산 참게의 모양과 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왜 지금은 잘 잡히지 않게 되었는지도 짚어준다. 하동 녹차 편에서는 차나무의 잎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질박한 정통 한국식 다도를 보여준 것도 의미 있다.

[그림 7] <사라진 미>



출처 : KNN

<사라진미>는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처럼 시골에서 밥해 먹는 체험 같은 플롯으로 시작해서, 한국의 맛을 찾아가는 교양 프로그램 회차를 채워나간다. 우리나라 토종밀인 ‘얇은 키 밀’이 있는데, 진주에선 그 밀로 만든 토종밀가루를 만든다. 노란 참외만 있는 줄 알지만, 초록색의 토종참외 ‘사과참외’도 있다. 덜 달고 시원한 맛이다. 창녕 우포늪의 수생생물 마름의 열매를 ‘말밤’이라 하고, 옛날에는 이것을 먹었다. 마와 밤의 중간 맛으로, 담백하고 고소하다. 지금은 말밤을 먹지 않고, 공예품 재료로 쓴다. 고성 of 토종 옥수수. 쥐이 빨옥수수는 다른 옥수수보다 알은 작지만, 맛은 더 고소하다. 거창의 굵더덕기 버섯은 식감이 쫄깃해서 데쳐서 양념해 먹거나 찌개에 넣어 먹으면 맛있다. 그 외에 밀양의 발효장인 보리개떡장과 합천에서 재배되던 토종쌀인 ‘불도’가 소개되었다. 다수확 신품종 통일벼가 나와 벼의 품종을 통일하기 전에 <조선도품종일람>에 나온 쌀의 종류가 1,500여 종에 이를

만큼 많은 토종쌀이 있었다. 14회 최종회에서는 13회 동안 소개된 식재료들을 다시 소개하면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덧붙이며 마무리한다.

[그림 8] <사라진 미>



출처 : KNN

과거에 풍부했던 작물들이 왜 오늘날 사라지게 되었을까. 기온과 강수량 등 생육환경이 변화되어 더는 자라지 않게 된 예도 있고, 상품성 있는 몇 개의 품종으로 획일화되면서 고유 품종이 도태된 예도 있다. 먹거리가 풍부해지면서 더는 먹지 않게 된 예도 있고, 생산자 나이가 고령화되면서 채취 방법이나 조리법이 잊힌 예도 있다. 그 빈자리를 외국에서 도입된 식재료가 채우고 있다. 요컨대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겹치면서 우리 땅에 존재했던 고유 품종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그것을 먹고 즐겼던 세대의 기억과 미각이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 작물이 자라던 지역의 생태계도 소멸 중이다.

<사라진미>는 이처럼 소멸하여 가는 작물의 맛과 조리법을 위기의식을 가지고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떤 작물의 무슨 품종이었고, 그 작물이 자랐던 풍광은 어떠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조리해 먹었고, 그 맛은 어땠는지를 상세하게 탐방하고 재현하고 기록한다. 4K 영상으로 담고, 정성스러운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자료를 곁들여 설명력을 높였다. 이에 앞서 지역민과 생산자들을 인터뷰해 이야기를 수집하고, 문헌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료 조사를 풍부하게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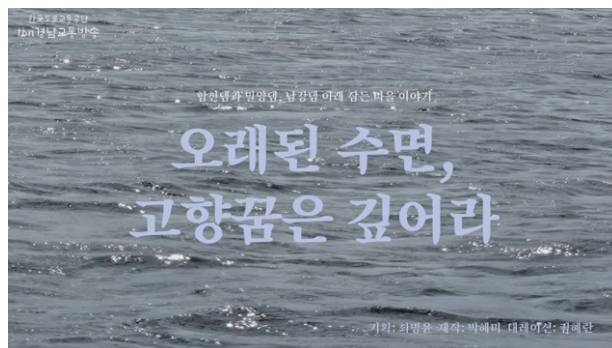
3. 수몰된 고향을 떠올리며, tbn경남(Radio) <오래된 수면, 고향꿈은 깊어라>

tbn경남교통방송에서 방송한 <오래된 수면, 고향꿈은 깊어라>는 2025년 설 특집으로 방송된 4부작 라디오 교양 다큐멘터리이다.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댐인 합천댐, 밀양댐, 남강댐의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실향민들이 기억하는 사라진 고향의 풍경을 구술 채록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25년 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지상파라디오부문상과 한국PD협회의 제299회 이달의 PD상 라디오지역부문상을 수상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 경상남도 전역에서 댐이 건설되었다. 댐 건설로 대대로 고향에서 터 잡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야 했다. 짐성촌이 많아서 일가친척이 모여 살던 마을이 해체되고, 실향민들은 정을 나누며 살던 이웃을 고향과 함께 잃었다. 당시 실향민들은 이주 보상을 받고 대부분 타지로 떠났고, 아주 적은 사람들만 고향 인근 마을에 남았다.

당사자들이 이제 80대 노인이 되어 일부는 돌아가시고, 자녀세대들도 60대가 되었다. <오래된 수면, 고향꿈은 깊어라>에서는 이들이 이주 당시를 떠올리며, 자신이 기억하는 고향 풍경을 들려준다.

[그림 9] <오래된 수면, 고향꿈은 깊어라>



출처 : tbn경남

프로그램은 총 1시간 13분의 분량으로, 4부작으로 나누어 약 18분씩 나흘에 걸쳐 방송되었다. 1부는 합천댐 아래 수몰된 봉산면 김봉마을, 2부는 거창군 남하면 대야마을, 3부는 밀양댐 아래 양산시 고점 마을, 4부는 남강댐 아래 진주시 귀곡동 까꼬실 마을 이야기를 담았다.

잔잔한 배경음악과 함께 김혜란의 목소리로 최양현 시인의 시 <향수>를 낭독하며 시작된다.

“철 따라 아름다운 봉황이 노닐던 산(중략)/눈 감으면 떠오르는 수물 전 터전이여/ 그곳이 요람이던가 자나 깨나 내 분향.”

이어서 “저마다의 사정과 아픔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은 많지만, 고향을 잃은 사람은 적습니다.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발아래 두고도 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보다 드물 겁니다.”라는 내레이션이 수몰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한다.

1부와 마찬가지로 2~4부도 고향을 그린 시나 노래 가사로 시작하며, 수몰로 고향을 내준 신헌민을 위로하는 내레이션을 이어간다. 매회 댐 공사로 고향을 잃고 고향 근처로 옮겨 살고 계신 분들의 인터뷰가 나온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고향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렸을 때 추억이 무엇이며, 이주 당시 심정은 어떠했는지 등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1부에서 만난 82세 김선동 할아버지는 1986년에 합천댐 건설로 이주하였다. 그는 수변 풍경이 좋아서 이름난 관광지가 되었을 곳이 전부 수몰되었다며 아쉬워한다. 온 동네가 함께 명절을 쇠고, 강에서 고기 잡던 추억을 들려준다. 이주로 다른 사람들은 도시로 나갔는데, 김선동 어르신만 유일하게 봉산면에 남았다. 댐 공사로 고향이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는 말이 쓸쓸하게 들린다.

2부에서 만난 83세 조정자 할머니는 김봉마을에서 살다가 21살에 인근의 거창 대야마을로 시집와 농사를 짓던 분이다. 합천댐이 생기면서 친정과 시가 마을이 모두 수몰되었다. 일가친척은 모두 도시로 흩어졌고, 홀로 남았다. 젃먹이를 엮고 무 농사, 사과 농사를 짓고, 강에서 잡은 은어로 어탕을 끓여 관광객에게 팔며 돈을 모아 번듯한 새집을 지었건만, 그 집도 수몰되었다.

3부에 출연한 61세 새마을지도자 장석태님은 양산시 고점마을에 살다가 밀양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된 주민이다. 고점마을은 계곡 하천가에 들배나무의 배꽃이 많은 경치 좋은 동네였다. 5~6대로부터 살던 집성촌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제삿밥을 나눠 먹고, 캠핑을 온 여행객들에게 김치를 퍼주곤 했던 인심 좋은 마을이었다. 조선 시대 학자 김종직이 ‘신선 세계 별천지’라고 칭송했던 ‘농암대’. 장석태님은 농암대 위에 막넛동생을 눕혀놓고, 계곡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놀던 추억을 들려준다. 그러나 이제 농암대도 계곡물도 배꽃도 모두 물에 잠겼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다.

4부의 진주시 까꼬실 마을은 1970년 남강댐 건설로 2백여 가구 전체가 수몰된 곳이다. 72세 정기운 할아버지는 점방을 하는 함석집에 살았는데, 남강댐 건설로 물난리를 겪다가 이주했다. 74세 정일곤 할아버지는 까꼬실 마을을 이렇게 회상한다. 이웃과 며칠씩 함께 잔치하고, 비가 오면 다리가 잠겨 학교 가기 힘들었지만, 큰아이가 작은아이들을 챙겨가며 강을 건너는 공동체였다고. 마을 사람들은 댐 건설과 수몰 문제도 우애의 마음으로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후 진주 시내로 이주한 그는 “남강댐이 완공된 덕에 진주시에 물난리가 나지 않고 진주시가 발전한 것”이라 말한다.

유일하게 실향민회가 조직되어 있는 까꼬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내레이션을의 마지막에 담겨 있다. “까꼬실 실향민회는 진주시에 물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물속에 잠긴 아름답고 유서 깊은 까꼬실 마을이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프로그램은 매회 시작마다 “경남 사람들이 마시고 쓸 물을 위해, 농사를 위해, 물난리를 막기 위해 고향을 내어준 댐 수몰 마을 실향민들”이라 호명하며, 명확하게 의미를 부여한다. 즉 단지 아련한 향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희생했는지 분명하게 짚으려는 기획이다.

그동안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고압송전탑이 세워지는 마을은 어쩔 수 없고, 서울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의 개발제한도 어쩔 수 없고, 국토방위를 위해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온갖 불이익을 겪는 것도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나 큰 희생에는 큰 보상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경제적인 보상만으로는 결코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는 삶의 가치였음을 분명하게 짚고, 기억해야 한다.